이베로아메리카 제2집(2000년)

칠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관한 연구

이 순 주*

1. 서 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는 유럽국가들에서 산업화이후 급속도로 증대되었고, 그 결과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여성과 남성간의 역할분담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으나, 교육, 가사, 육아, 고용 등 가정과 사회내 다양한 분야에서의 역할과 공헌 그리고 수익이 평등화 되어가고 있다. 특히 경제적 성장을 많이 이룩한 국가들일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기회도 증대되고 있다.

중남미도 예외는 아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의 확대는 최근 수십년간 중남미 국가들이 경험한 많은 중요한 변화들 중 하나일 것이다. 칠레의 경우 전문여성근로자가 배출된 것은 1876년의 일이지만, 대규모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이 이루어 진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 이는 1970년대 이후의 칠레의 사회의 어떠한 조건들이 여성들에게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EU전체에서 가장 높은 여성고용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포르투갈의 여성경제활동참여에 관한 연구[1]에서 까르도주(Ana Rute Cardoso)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의 요인을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측면을 중심으로

* 부산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강사

1) Ana Rute Cardoso,"Women and Economic Development: Who's Pushing What?",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September 1996, vol.28, no.3. pp.1-34.

분석하고 있다. 이는 단일국가사례에서 경제발전과 산업화과정의 어떠한 맥락 속에서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되며, 노동시장은 이를 받아들이는 가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효하다. 왜냐하면 각 국가들의 경제발전정책들의 방향과 정치, 사회적 배경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칠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칠레여성의 경제활동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칠레의 정치, 사회적 변화 속에서 노동력의 공급자로서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되는 요인과 수요자인 노동시장이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칠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현황

2-1. 경제성장과 경제활동참여

칠레경제의 규모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와 함께 중간수준의 국가에 속하지만 1인당 GDP에 있어서는 아르헨티나, 멕시코,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2500불을 초과하여(1994) 높은 편이다. 그러나 1970년대에서 1990년도까지의 칠레의 실업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칠레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라틴아메리카 전체평균인 151.7%보다 훨씬 낮은 123.9%에 그치고 있으며, 순위로는 중남미 내 19개 주요국가들 중 14위에 해당한다[2]. 또, 2000년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도 라틴아메리카 주요 20개국 중 14위로서 하위국가군[3]에 속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경제성장정도와 여성의 경제활동

2) Instituto de la Mujer, FLACSO, *Mujeres Latinoamericanas en Cifras. Tomo Comparativo,* Santiago:FLACSO, 1995. p.70. 참고.

3) United Nations, *Statistical Yearbook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1999 Edition*, Santiago: CEPAL,2000. pp.20-21 참고.

참여가 상호 비례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1) 칠레의 GDP 성장

	1970	1975	1980	1985	1990	1994
Total GDP*	19,603.0	17,501	25,295.7	24,296.3	32,709.0	412,747
1인당 GDP**	2,063	1,691	2,270	2,004	2,483	2,870

* 단위:백만USD, ** 단위USD

(표2) 칠레의 일인당 GDP 성장률

	1970-1975	1975-1980	1980-1985	1985-1990	1990-1994
GDP/p 성장률	-3.9%	6.1%	-2.5%	4.4%	5.5%

2-2. 칠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패턴

칠레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비율은 1950년도부터 감소세를 보이다가 1970년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남성의 경제활동인구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1990년대에 들어 증가했다. 칠레 전체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50.5%를 상회하고 있으나 아직 여성경제활동인구는 남성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3) 칠레의 연도별 경제활동인구 및 비율 (단위:천명)

	1950	1960	1970	1980	1990
양성전체	3,157(51.9%)	3,446(45.7%)	3,915(41.2%)	4,628(41.5%)	6,095(46.5%)
여성	795(25.9%)	758(19.7%)	869(18.1%)	1,205(21.3%)	1,789(27%)
남성	2,386(79.2%)	2,727(72.5%)	3,066(65.4%)	3,440(62.6%)	4,328(66.9%)

출처: Instituto de la Mujer, FLACSO, op.cit., p.67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Activity Rates 1950-1990 에서 부분발췌.

또, 성별과 거주지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최근 30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90년대 이후 급속하게 증가했다. 농촌지역에서는 1970년에서 1980년까지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그 증가세는 거의 중단되거나 감소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5세에서 29세 사이에 가장 높은 경제활동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30세부터 49세 까지는 매우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된다. 칠레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출산도 늦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데, 1988년의 통계[4]를 보면, 노동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여성보다 약 5년정도 출산이 늦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25세에서 29세시기에 여성이 임신과 출산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서 이탈했다가 이후시기에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현상이 대부분 나타난다. 칠레의 경우는 오히려 포르투갈[5]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포르투갈에서는 25세에서 34세까지 높은 고용율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그 이유를 까르도주는 노동시장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노동시장제도가 여성에게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지속적으로 서비스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오히려 제조업부분에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칠레의 GDP구성이 대략 농업15%, 공업30%, 서비스업55%정도(1990년)[6]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때, 서비스업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

4) Valeria Ramírez, *Cambios en la Familia y en los Roles de la Mujer*, Santiago: CELADE, 1995. p.11

5) Cardoso, *op.cit.*, pp.5-7.

6) *Almanaque Mundial*, 1996. p.566.

(표4) 칠레의 주요경제활동분야별 경제활동인구비율 (단위:%)

	농업			공업			서비스업		
	1970	1980	1990	1970	1980	1990	1970	1980	1990
전체	23.2	16.5	15.8	28.7	25.2	27.4	48.1	58.3	55.8
여성	2.5	2.3	3.6	23.4	16.4	15.5	74.1	81.3	80.9
남성	29.2	21.8	21.4	30.2	28.3	33.2	40.6	49.9	45.4

출처: UN,op.cit, pp.26-8 참고. 농업분야에는 임업, 수산업을 포함한 수치이며, 공업에는 건설, 광업, 제조업, 에너지, 등이 포함되며, 서비스업에는 금융, 운송, 창고, 통신, 정부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가 포함된다.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여성의 서비스부문 참여가 약 60%-80%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칠레는 아르헨티나(81.5%) 파나마(82.9%)와 함께 최상위권 국가에 속한다. 이러한 서비스 부문에서의 여성의 높은 활동율은 이 지역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7]이 사회와 가정, 그리고 여성개인들에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칠레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칠레 사회에서의 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대한 많은 사회, 문화적 장벽은 여성들이 동등한 경제활동자로서의 사회진입을 그게 제한했다. 칠레에서 도시화가 시작된 1850년에서 60년 사이에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여성의 노동은 가내수공업규모의 작업장에서 매우 단순한 작업에만 투입이 되었고 임금은 매우 적었다.

7) 라틴아메리카에서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범주는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역할로서 항상 가족에게 헌신적이고 봉사하며, 다른 가족구성원-특히 남성-을 위해 자신들의 목적은 뒤로 미루는 그런 역할이다.

당시의 여성에 대한 교육은 읽고, 쓰고, 바느질하는 것에만 제한되었다. 이는 여성들의 무지함을 유지하여 남성가족에 대한 반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1860년 칠레대학교가 여성에게 부분적으로 문호를 개방한 이후 1876년 Amantequi 헌장을 통해 전 교육기관에서 여성을 받아들였다. 이후 1930년대 중반에는 칠레대학교 졸업생의 19%가 여성일 정도에 이르렀으며, 이들 졸업생은 교사, 약사, 치과의사, 간호사, 법률가, 의사 등의 전문직으로 진출했다. 또, 태평양전쟁(1879)을 통해 간호군과 같은 형태로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여 여성에 대한 사회 내에서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실질적인 칠레의 노동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1890년대 부터였다. 특히 의학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학교, 무주택자보호소, 알콜중독자 수용소 등에서 일을 했다. 이는 사회 내에 마리아니스모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초기 여성직업인들의 사회진출로 1949년에는 투표권을 획득했고, 1960년대와 1970년대 동안 Eduardo Frei(1964-1970)와 Salvador Allende (1970-1973)의 집권기에는 국민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시기였고, 이러한 배경은 여성들이 정부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도록 했다[8].

1964년 선거에서 전체 여성유권자가 63%가 Frei를 지지하여 Eduardo Frei가 56.1%의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되는데[9] 있어 상당한 힘이 되었다. Frei의 주요 경제정책은 구리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여 정부의 재정상태를 보완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증대시켜 다른 개혁을 뒷받침한다는 것과 기초적인 토지개혁을 통해 권력과 자원을 고

8) Ximena Bunster. "Women's Influence in Chile- the last 150 years", http://www.localaccess.com chappell/chile/women.htm

9) Jay Kinsbruner. *A Historical Interpretation,* New York: Harper Torch Books, 1973. p.154.

루 배분한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빈곤계층의 기대수준만 높였을 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10].

민주적 선거를 통해 최초로 수립된 사회주의 정권인 아옌데 집권기(1970-1973)는 여성들의 많은 사회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아옌데는 집권초기에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있어서 빈민여성들이 자신의 중요한 지지기반이 될 것임을 인식하여 근린여성의료센터와 무료우유 배급, 20인 이상의 작업장에서의 탁아소 설치, 사생아와 이혼의 합법화, 정부내 가정전담부서의 설치[11] 등의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으나 많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것은 아옌데 정권 당시 평균 GDP성장률이 0.3%정도로 매우 낮은 상태였고, 국가재정과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효과적인 정책실시를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아옌데와 그 정부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한계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는 구리광산의 국유화 과정과 토지개혁 등의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추진을 위해 여성들에게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임기 1주년 연설에서도 사회주의 대통령이기보다는 전형적인 라틴아메리카 남성의 여성에 대한 시각을 보여줌으로써 정권의 변화에도 여성의 보조적 역할에 대한 인식은 거의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

> "....전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결속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기반을 확대해나가면서 승리할 것이고... 연구함으로서 승리할 것이며...생산함으로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칠레여성들이 우리의 의지를 배우고, 그들의 남편과, 아들과 형제들의 투쟁에 동참할 때 승리할 것입니다..."
>
> - Salvador Allende, *La Revolucion Chilena*(1973) 중에서-[12]

---

10) 남승환, 『칠레 경제성장의 정치경제: 피노체트 집권기(1973-1989)의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p.38-39.

11) Camilla Townsend. "Refusing to Travel la Via Chilena: Working Class Women in Allende's Chile," *Journal of Women's History*, Vol.4. No.3 Winter. p.48.

12) *ibid.*,재인용. p.55.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여성정책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정책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하며, 많은 국가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에도 영향을 준다.[13] 따라서 여성의 역할을 남성의 역할에 대한 '부수적'인 것으로 가정하게 됨으로써 여성의 임금이 보통 남성의 임금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하며, 경제활동 참여기회와 소득기회제공 또한 남성에 비해 제한되게 된다. 아옌데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들은 여타 어느 정권보다 파격적인 것이었지만 피노체트의 쿠데타로 실각하기 전까지 3년여 동안의 재임기간 동안 실현에 옮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아옌데 정권을 3년만에 쿠데타로 무너뜨린 피노체트(Augusto Pinochet)의 정권의 시기는 여성의 정치적 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피노체트의 쿠데타와 독재는 칠레 여성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여성들이 경제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남성들의 정치조직 결성이 금지되고 이를 시도한 경우에는 감금, 납치, 실종, 고문을 당했고, 여성들은 이들을 위해 수차례의 대규모 시위를 반복하기도 했다. 쿠데타 이후 많은 남성들의 감금, 고문 및 실종과 직장내에서의 실직은 많은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밖에 없었다. 피노체트는 집권후 거의 2년여 동안 칠레부근의 빈민가에 주둔하면서 아옌데 정권시기에 조직된 지역노조와 교회와 자선단체에 의해 만들어진 어머니센터(Centro de las Madres)를 비롯한 다양한 조직들을 해체시켰다. 그는 수출을 위한 원자재 생산, 복지관련 정부지출의 감축, 교육 및 보건서비스의 민영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시카고 학파의 통화주의적 경제정책을 실시했다. 그 영향은 산티아고 인근 빈민거주지 등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피노체트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가두시위가 있었던 1983년에는 경제활동인구의 1/3이 실직상태에 있을 정도로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Ollas Comunes 와 같은 여성활빈단체 등이 산티아고 주변에 494개에 달할 정도로 증대되었다. 이

13) Hanna Papanek, "Development Planning for Women", *Signs*, vol.3, no.1, p.15.

러한 단체를 통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표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상당부분이 비공식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표5) 1980년 칠레 도시지역의 성별에 따른 공식, 비공식 고용[14]

	여성(%)	남성(%)	전체(%)
공식부문	59.8	77.9	72.0
비공식부문	40.2	22.1	28.0
전체(%)	100.0	100.0	100.0
인구수	(969,900)	(2,003,200)	(2,973,100)
가사노동자(%)	19.0	0.4%	

70년대의 센서스에서 여성노동력의 40%가 가정부 등의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5%가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이 종사하는 분야(pink-collar)에, 15%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핑크칼라노동자의 일부와 전문직 종사자는 칠레사회내에서 중상층가정 출신으로 여성전체노동자의 25%를 차지하는데 이들이 받는 임금은 여성전체임금의 50%를 상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별격차 뿐만 아니라 여성 내에서도 계급적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의 중요한 변화중 하나다[15].

군사정권역시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군사정권의 정통성확보를 위한 여성의 지지도획득을 위해 피노체트의 부인인 Lucía Hiriart de Pinochet에 의한 CEMA의 재조직 이념에서도 나타난다. 군부정권은 '여성의 자연적 과제를 통해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고...여성은 가족에 대한 봉사를 통해 '애국

14) 출처: Thelma Galvez , Rosalva todaro "Chile: Mujer y Sindicato" in Elizbeth Zelin, *Ciudadanía e identidad: Las Mujeres en los Movimientos Sociales Latinoamericanos*, Geneva: UNRISD, 1987. p.195.

15) *ibid.*, p.50.

심과 애국적 힘'을 표현할 수 있다'[16]는 논리를 강조했다. 여성에 대한 교육확대도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 있는 어머니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재조직된 CEMA는 여성들에 대한 물질적 혜택을 주면서 여성을 탈정치화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위한 한 방편이었다.

피노체트 정권기에 실시되었던 주요 경제정책들은 여성들이 서비스 부분에서 경제활동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피노체트정권시기의 "7대 근대화"의 기치아래 실시된 사회보장, 의료, 교육부문 등의 개혁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실시되었는데, 주요국영기업의 민영화는 피노체트 이후의 아일윈 대통령집권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다. 민영화에 해당되는 내용은 광업, 제철, 전기, 전화, 식품제조 등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주요 기업들이었다. 특히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의 전통적 역할 부문으로 불리는 의료, 교육부문의 개혁등은 여성의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왔다.

4. 칠레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요인

칠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어떠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확대되어왔는 가를 지금까지 살펴보았다. 학자들은 여성이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 교육과 가난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 교육은 경제활동참여를 선택하게 하고, 가난은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다[17].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일수록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강한 경향을 보이며, 또 나은 지위로의 진출을 위해 더 많은 교육에 대한 투자

16) Elsa Cleary, *El Papel de las Mujeres en la Polltica de Chile*, Alemania Federal, 1987. p.133.

17) Cardoso, *op.cit.*, pp.12-14.

를 하게된다. 이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여성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합류하려는 강한 경향을 나타내며, 교육과 훈련의 수준이 높을 수록 소득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득획득의 기회와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좀 더 나은 삶으로의 진행기회도 상실되게 된다. 따라서 많은 여성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교육에 대한 투자의 환원을 위한 것이며, 더 많은 소득을 위해 교육과 훈련에 많은 투자를 하게된다. 이러한 설명은 칠레에서는 여성경제활동인구의 15%에 해당하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와 일부 사무직여성의 경우에 더욱 더 적절한 설명이 된다.

칠레 여성들은 앞서 칠레사회의 변화 속에서 보았듯이 가족의 생존과 관련하여 필요에 의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더욱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칠레가정의 21.5%(1980)에서 23.2%(1990)가 여성가장이며, 이들 대부분이 칠레사회의 극빈층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여성들이 자아실현을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과는 달리 칠레에서는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역할과 생존을 위한 필요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까르도주의 연구에서 포르투갈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여성을 받아들이는 요인들로 국제경쟁력제고, 저임금,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를 들고 있다. 수출 주도적인 산업부문에서 는 국제경쟁력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수출산업분야에서는 저임금의 여성노동력을 선호하게 되며, 그러한 분야에서의 여성고용의 증대가 두드러진 다고 설명한다.

칠레의 경우 주요수출산업은 구리(49.6%), 비동광품(9.70%), 수산물(9.0%), 임산물(9.6%)농산물(9.5%) 기타(12%) 정도로 광업과 농수산물에 집중되어 있다. 이 분야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분야들이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진출요인 중 국제경쟁력제고는 칠레의 사례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다른 두 가지 요인인 저임금과 노

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요인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의 칠레여성의 직업별 고용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6) 도시지역에서의 직업별 고용현황(1990)

	전문/기술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농직	제조업	개인서비스	기타	전체
여성	19.6	0.7	17.3	17.9	...	15.1	29.3	0.1	100
남성	10.8	1.6	13.6	13.4	...	49.8	10.3	0.4	100

출처: Instituto de la Mujer, op.cit.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여성의 제조업에서의 고용은 남성과 비교하며 매우 낮다. 1990년도 통계에 의하면 중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58.8%가 상업에, 제조업에는 3.9%만이 종사한다. 남성의 경우는 25%가 상업에, 66.3%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비스 분야의 높은 고용률은 전문직을 제외한 일부 사무직과 나머지 상업과 같은 서비스업은 많은 교육수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제조업분야에서는 여성의 노동력이 '비숙련'노동력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산업화와 기술이 진보할수록 비숙련공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여성보다 남성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키기 때문이다[18].

도시화의 진행에 따른 여성의 도시로의 이주는 여성에게 교육에 대한 접근과 다양한 노동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기회의 확산은 발전의 한 부분으로서 노동생산성이나 전통종교, 문화행위, 혹은 가족단위내에서의 이미 형성된 여성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인식을 더욱 더 강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19]. 여성의 역할에 대한 '부차적'인 것으로의 인

18) Sue Ellen M. Charton. *Women in Third World Development,* Boulder: Westview Press, 1984. p.19

19) *ibid,* p.34

식은 정부의 발전 및 고용정책 수립방향에 영향을 주게되며, 여성들을 저임금과 비공식노동부문에 집중시키는 경향을 보이게 한다.

여성이 받는 임금은 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평균 남성의 73%정도에 그친다. 초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남성의 66%정도, 중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70%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칠레의 경우에서도 성별간의 임금격차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참여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있다.

또, 여성의 경우 가사업무와 병행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고정기간 노동계약자들보다 적은 시간제 노동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많다. 경제활동 참여인구중 주평균 노동시간이 일주일당 34시간 이내인 여성의 비율은 19.3%, 남성은 6.8%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은 노동수요자의 측면에서는 국가가 요구하는 노동자의 복지와 같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의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게 된다. 또, 불황기에는 비정규노동자의 해고 등을 통해 노동력 수급을 탄력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성의 대체노동력으로서의 여성의 노동력이 저임금으로 제공됨으로서 남성의 임금도 또한 낮게 유지시키는 효과도 함께 가져오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받아들이게 된다.

5. 결 론

칠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최근 30-40년 사이에 급속히 증가했다. 이는 특히 피노체트 정권시기의 억압 속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활동의 증대는 경제참여로 확대되게 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경제성장과 함께 빠르게 증대했으나. 서비스업과 같은 특정산업부문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노동시장에서의 고용확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노동의 공급자로서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교육의

확대에 따른 선택과 경제적인 필요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많은 개도국들에서 수요자의 측면인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참여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임금노동력의 선택이 주요 이유가 되고 있으나, 칠레의 경우에는 국제경쟁력을 필요로 하는 주요 수출산업분야보다도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범주에 대한 정부와 정책입안자들의 인식이 교육과 정책수립을 통해서도 반영이 되거나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성의 저임금과 여성고용의 비정규성도 노동시장이 여성노동을 선택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한편으로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기도 하지만, 역으로 여성의 근로조건이 지속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정도와 주요활동분야의 설정은 정책결정자들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규정과 정책방향의 설정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해서는 정책결정단계에서 여성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참여의 확대가 동반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Almanaque Mundial 1996.

Bunster, Ximena. "Women's Influence in Chile- the last 150 years", http://www.localaccess.com chappell/chile/women.htm

Cardoso, Ana Rute."Women and Economic Development: Who's Pushing What?",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28, no.3. September, 1996.

Charton, Sue Ellen M. *Women in Third World Development,* Boulder:

Westview Press, 1984.

Elsa Cleary, *El Papel de las Mujeres en la Polltica de Chile,* Alemania Federal, 1987.

Hanna Papanek, "Development Planning for Women", Signs, vol.3, no.1. 1977.

Instituto de la Mujer, FLACSO, *Mujeres Latinoamericanas en Cifras.* Tomo Comparaticvo, Santiago:FLACSO, 1995.

Kinsbruner, Jay. *A Historical Interpretation,* New York:Harper Torch Books, 1973.

Ramírez, Valería, *Cambios en la Familia y en los Roles de la Mujer,* Santiago: CELADE, 1995.

Thelma Galvez , Rosalva todaro "Chile: Mujer y Sindicato" in Elizbeth Zelin, *Ciudadanía e identidad: Las Mujeres en losMovimientos Sociales Latinoamericanos*, Geneva: UNRISD, 1987.

Townsend. Camilla. "Refusing to Travel la Via Chilena: Working Class Women in Allende's Chile," *Journal of Women's History,* Vol.4. No.3 Winter.1993.

United Nations, *Statistical Yearbook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1999 Edition, Santiago: CEPAL, 2000.

남승환, 칠레 경제성장의 정치경제: 피노체트 집권기(1973-1989)의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